Ⅰ 빅테크의 정의 및 특징

1. 빅테크의 정의

○ '빅테크(Big Tech)'는 금융 관련 언론 및 국제기구에서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거대 기술회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(BIS 2019; FSB 2019a, b; Frost et al. 2019 등)

- **(등장)** 빅테크란 용어는 미국의 'GAFA'(Google, Amazon, Facebook, Apple), 중국의 'BAT'(Baidu, Alibaba, Tencent) 등 거대 기술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함

○ '핀테크(Fintech)'가 금융업에서의 기술기반 혁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핀테크의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, 빅테크는 사업분야·영향력 등 측면에서 '핀테크기업'과 의미가 차별화되어 사용됨

- **(사업분야)** 핀테크기업은 금융서비스 제공이 주력사업인 반면, 빅테크는 광범위한 사업분야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
- **(영향력)** 일반적인 핀테크기업과 달리 빅테크는 확립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을 지칭함

○ 본 보고서에서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주력사업을 가진 거대 기술기업으로 정의함

- **(네트워크)** 빅테크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, 결제·송금, 예·적금, 대출, 자산관리,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
- **(주력사업)** 주력사업의 종류로 전자상거래(예, 아마존), 소셜미디어·메시징(예, 페이스북·카카오), 검색엔진(예, 구글·네이버) 등 플랫폼사업 외에도 하드웨어 제조(예, 애플·삼성), 통신사업(보다폰) 등이 있음
- **(거대기업)** 빅테크로 구분할 수 있는 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,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고객기반 및 자금조달력 등을 갖춘 기업을 의미함

2. 빅테크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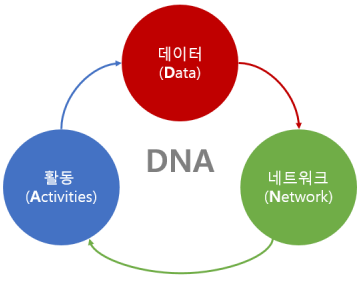
○ 빅테크의 경쟁력은 데이터분석 능력(Data Analytics), 네트워크 외부효과(Network Externality), 상호 연계된 활동(Interwoven Activities)을 기반으로 함(Carstens 2021)

- **(DNA)** 고객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, 네트워크는 참여자의 활동을 확대하며, 확대된 활동은 다시 새로운 고객데이터를 형성하는 순환고리(Data-Network-Activities Loop) 형태를 가짐
  - 네트워크 효과로 빅테크가 제공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
  - 기술 투자 등 초기 고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만,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매우 낮아 고객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
  - 새로운 고객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됨
- **(상호증폭)** 즉, 고객 수, 데이터 획득량,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및 범위 간 상호증폭 효과가 발생함

○ 빅테크는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고,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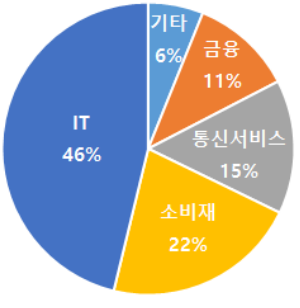
- **(사업확장)** 전체 매출에서 주력사업인 IT가 차지하는 비율은 46%이고, 최근 들어 진출이 활발해진 금융도 11%를 차지함
- **(지역분포)** 전 세계적으로 자회사를 운영하고, 그 중 아시아와 북미 비중이 43%, 37%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

〈그림 Ⅰ-1〉 빅테크의 사업모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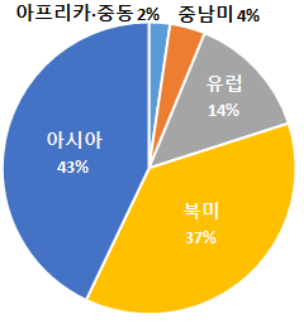
자료: Carstens(2021)

〈그림 Ⅰ-2〉 섹터별 매출 비율



자료: BIS(2019)

〈그림 Ⅰ-3〉 자회사의 지역 분포



자료: BIS(2019)

○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시가총액이 금융회사보다 높음

- **(시가총액)** 2021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 기업 중 빅테크는 7개를 차지한 반면, 금융회사는 1개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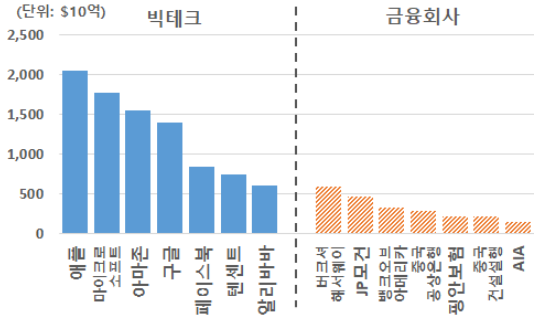
○ 빅테크는 사업모형의 특성상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소수만 시장에 살아남아 높은 시장지배력과 거대한 고객기반을 보유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보다 수익성이 더 높음

- **(수익성)** 2018년 기준 미국 빅테크(GAFA)와 중국 빅테크(BAT)의 ROE는 각각 32%, 19%로 대형 금융회사(7%)보다 훨씬 높음

○ 빅테크는 금융회사보다 내부 자금확충 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부 자금조달 비용도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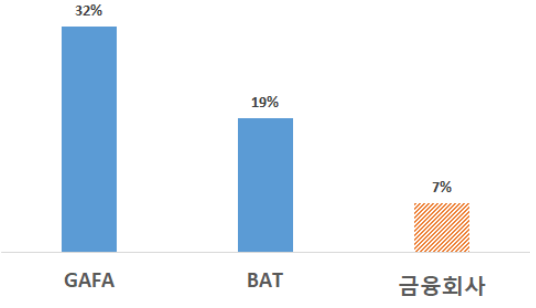
- **(자금조달력)** 빅테크는 높은 수익성으로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여 현금보유가 높고, 신용등급도 높아 외부조달 비용이 더 낮음

〈그림 Ⅰ-4〉 빅테크 vs. 금융회사: 시가총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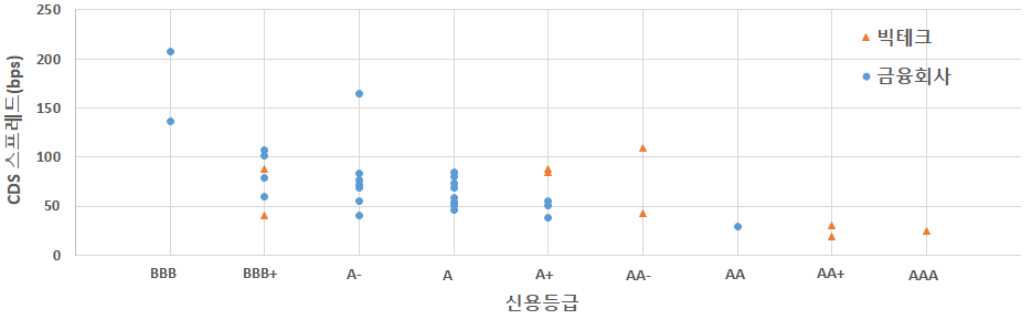
주: 2021년 3월 말 기준임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Ⅰ-5〉 빅테크 vs. 금융회사: 수익성(ROE)



주: 2018년 기준, 금융회사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(G-SIB)을 대상으로 함
자료: FSB(2019b)

〈그림 Ⅰ-6〉 빅테크 vs. 금융회사: 외부 자금조달 비용



주: 2018년 11월 기준임
자료: FSB(2019b)